

# 제주사회복지신문

## 사회보장 정보 지원 구체화 필요

### 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

제주도민들은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 제도 운영과 관련, 이용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민 1011명(제주시 609명·서귀포시 402명)을 대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 ±3.1%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사회보장(복지)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모든 항목이 '이용 의향 없음'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함'으로 응답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 도움 신청 경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제주시 76.1%, 서귀포시 75.2%로 높았지만, 서비스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60.2%, 62.8%로 집계됐다.

아동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보육시설/방과 후 학교 외 대부분 참여율이 저조했고 만족도 또한 '불만'으로 조사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돌봄 과정 중 어려움 정도는 제주시가 61.7점, 서귀포시가 38.3점으로 점수 차이를 보였으며 제주시, 서귀포시 모두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반대로 사회보장 항목 만족도 '대체로 만족', 보호·안전 및 건강(정신적)항목 평가는 '매우 만족'으로 조사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지역사회보장 직접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이 지원해야 되는 분야는 아동·청소년 복지가, 거주 지역에 확대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보장 정책 중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는 사회복지예산 증액으로 조사됐다. 확대 설치가 필요한 보건·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이 조사됐으며, 보건/복지 관련 영역 중 중요한 분야에는 건강이 선정됐다.



## 사회공헌 아카데미 운영

'제주 사회공헌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사회공헌 아카데미'의 본격적인 운영이 지난 22일 카카오에서 시작되었다.<사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제주지역 내 사회공헌활동 수행 기업의 사회공헌업무 담당자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해 제주지역 사회공헌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내 9개 기업이 참여하는 '제주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출범시킨 바 있다.

'사회공헌 아카데미'는 네트워크의 첫 사업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및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기업,

비영리단체 담당자 및 대학생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제주 사회공헌 아카데미는 월 1회(넷째주 금요일) 네트워크 참여기업 사업장에서 진행되며, 기업 사회공헌활동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공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강금순(제주대)씨는 "카카오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기업이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나눔박스 만들어요" ▲ 지난달 22일 제주광역푸드뱅크에서 기부식품등제공사업 민·관 합동워크숍 참가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사랑의 나눔박스를 만들었다.

### 지면소개

- 종합 ..... 3면  
"청정한 제주 우리가 만들어요"
- 특집 ..... 7면  
노동시간 주당 68시간서 52시간으로 단축
- 사회복지소식 ..... 4면  
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실시
- 기획 ..... 8면  
시설탐방(98) - 제주몽생이그림출

## 취 축 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신제주로타리클럽 회장



원희룡



이석문



김희현  
(제주시 일도2동을)  
(본 협의회 회원)



강철남  
(제주시 연동을)  
(전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송창권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전 성지요양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 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고은실  
(정의당 비례대표)  
(전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장)



박경섭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광역푸드뱅크 운영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 일동

# 중문청소년문화의집 문 열다

## 지난달 23일... 진로체험·멀티실·공연연습실 등 운영

서귀포시는 지난달 23일 중문청소년문화의집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

중문청소년문화의집은 천제연로 185번길 11-1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804㎡ 규모로 총 19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1층에는 놀이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래방, 탁구, 포켓볼장, 게임실, 멀티실, 인터넷 부스가 꾸며져 있다.

2층에는 꿈의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배움터(강의실1,2)와 제주도내 최초로 조성된 바리스타교실,

홈베이킹 진로체험실 그리고 청소년 북카페가 마련됐다.

3층은 열정의 공간으로 청소년의 무한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연연습실, 댄스연습실, 동아리실 등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조성했다.

중문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진로직업체험활동, 문화감성활동, 문화예술

활동, 청소년 자원봉사 협력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개발활동, 지역연계활동 등 8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새로 개관한 중문청소년문화의집 이용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치활동을 경험하여 건전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제주지역 주차난 해결 힘 모은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28일 협의회에서 화북동(동장 김태리)과 부설주차장 공유(개방)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주차장 2면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부설주차장 공유(개

방)사업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유자·이용자·행정시 3자간에 협약으로 체결해 운영된다.

# 찾아가는 여성영화 6일 상영

제주여민회(공동대표 이경선·김영순)는 오는 6일 오후 7시 제주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제19회 제주여성영화제 찾아가는 여성영화 '나만 없는집(감독 김현정)'을 상영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19회 제주여성영화제를 알리기

위한 사전 행사로, 섬 지역 주민 및 결혼이주여성 등 문화생활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영화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외감과 외로움, 그리고 유년시절 겪었던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내면서 어린 아이가 겪는 가족애의 결핍을 다룬다.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은 7월 20일까지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정책 활용도가 높은 체감형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9년 연구과제'를 공모한다.

공모전은 '일·가정 양립', '성 주류화', '여성의 대표성 제고', '민선7기 여성·가족 정책' 등 현안들을 살펴보고, 도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 양성평등 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 자격은 여성·가족분야 관심 있는 도민, 여성·가족 유관기관 등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제주 여성의 삶과 역사 재조명을 위한 기초 연구 과제 ▲여성 일자리 창출, 고용의 질 개선, 창업 분야 정책 연구 과제 ▲돌봄, 아동·청소년 복지,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정책 연구 과제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과제 등이다.



참여 방법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www.jewfri.kr) 공지사항 및 팝업창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jewfri@jewfri.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64-710-4978

**“세상에 하나도 가장 맛있는 나눔”**

**6월 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축산물67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1,892개 ▲(주)쿵스투어 제주이도점=제빵212봉 ▲김태연님=생활용품16개 ▲나눔베이커리=제빵197봉 ▲농협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96모,콩국252팩 ▲던킨도너츠 제주이도점=도너츠86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1,510개 ▲미인빵=빵99봉 ▲비엔누아즈=제빵366봉 ▲신화유통=식료품306개 ▲아라파파=떡20개 ▲정필이오메기떡=떡222개 ▲캣어클락=제빵4봉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 경증 치매어르신 단기쉼터 운영

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는 지난달 18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경증치매어르신들을 위한 단기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단기쉼터는 경증치매어르신들이 혈압검사 등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운동, 인지학습 등 다양한 놀이 치료가 이루어진 복합적인 공간이다.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요양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경증치매환자다.

단기쉼터는 주 3회(월, 수, 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치매어르신들의 작업능력,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래교실, 원예치료, 회상요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접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용정원은 20명이다.

단기쉼터 관계자는 “쉼터

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이용자 간 서로 교류하면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해 인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치매환자를 전적으로 돌보아야 했던 주보호자에게 잠시나마 여유시간을 주면서 치매환자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복지협의회 2018년 5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370,000	1,010,000
난치병환아후원	50,000	0
자원봉사후원	5,410,000	5,410,000
복지사업후원	980,000	338,460
푸드마켓후원	3,172,382	2,077,76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봉식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문로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 “청정한 제주 우리가 만들어요”

## 도사회복지협의회, 환경정화활동 실시



제주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자원봉사자들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사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회장 김홍철)가 주관하는 ‘건강한 제주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이 지난달

9일 제주 올레길 20코스(김녕해수욕장~딩개해안)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작은세상봉사단, 온누리봉사회, 좋은인연봉사회, 손뜻모아봉사회)와 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지역사회봉사단 자원봉사자와 직원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해안가 일대를 돌며 폐가전제품, 유리병, 비닐, 노끈, 스티로폼 등을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 참가자는 “이번에 처음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게 됐는데 아름답지만 한 줄 알았던 제주바다가 많은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번 환경정화 활동을 계기로 아름다운 제주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가족상담사 양성교육 20명 수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 15일 협의회 바람소리홀에서 ‘2018년 가족상담사 양성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사진>

가족상담사 양성교육은 지난 4월 27일부터 7주간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단체의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수료식은 사례관리 발표와 함께 교육프로그램은 이수한 수료자 20명에 대한 수료증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교육 담당자는 “수료생들은 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상담기법, 매체 등을 활용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심도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상담사 양성사업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8년 신청사업으로 선정돼 운영 됐다.



###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 제주들꽃합창단 5회 정기연주회 열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소속 지역사회봉사단 제주들꽃합창단(단장 원석철)은 지난달 2일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정기연주회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마을(박영주 곡), 눈(김효근 곡), 청산에

살리라(이현철 곡) 등 아름다운 가곡으로 꾸며졌으며 2부에서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 세계의 민요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테너 김광진과 한마음선원 소년소녀선법합창단의 특별무대가 더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원석철 단장은 “이번 공연

을 통해 음악으로 하나 되고 화합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희숙 단원은 “제주들꽃합창단이 재창단 된 후 첫 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단원들 모두가 끊임없는 도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주들꽃합창단은 여성합창단으로 활동하다 2018년 2월부터 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 소속 혼성합창단으로 재창단해 사회복지시설·단체에 찾아가 공연을 진행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음악 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신한코리아, 이웃사랑 물품 기부

신한코리아(대표이사 김한철)는 지난달 18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광역시푸드뱅크에 580만원 상당(10kg 쌀 200포) 이웃사랑 물품을 기부했다.<사진>

이날 전달식은 JDX 멀티스포츠 제주 본사직영점(대표 최도근) 오픈을 기념해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의미를 함께하고자 진행됐다.

김한철 대표는 “이번 사랑의 쌀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



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고 일상을 든든하게 하는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부 물품은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전달될 예정이다.

## 제주은행, 사랑의 김밥 만들기 봉사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지난달 19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에서 지역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60가구를 위한 ‘사랑의 김밥 만들기’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다.<사진>

이번 활동은 제주은행 임원들이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의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임원자원봉사활동’의 세 번째 행사다.

박호기 제주은행 부행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다양



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제주의 대표은행으로서 임원들부터가 솔선수범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협의회 - 국제대, 사회복지임상치료대학원 협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임상치료대학원(원장 권순용)은 지난달 1일 제주국제대학교에서 사회복지 연구활동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협약에 따라 도사회복지협의회는 대학원의 연구활동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대학원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복지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기로 했다.

## 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실시

제주도는 위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은 만9세 이상~만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선정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가정의 현재 상태와 위기 정도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된다.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은 생활, 건강지원을,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은 학업, 자립, 상담, 법률지원 등을 받게 된다.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매월 50만원 이내로 생활지원을 비롯해 청소년 건강 검진비, 치료비 등을 위해 연 220만원 이내 건강지원도 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월 15만원 이내로 수업료 지원, 검정고시 준비비 월 30만원 이내로 학업지원을, 취업을 위한 지식, 기술, 기

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비 월 36만원 이내로 자립지원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심리상담 월 20만원 이내 지원, 심리 검사비는 별도로 연 25만원 이내로 상담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연 350만원 이내 법률지원도 이뤄진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된다.

## 사회복지법인 춘강, 나눔 실천

한림읍 한수리 일원, 사회공헌 활동 펼쳐

사회복지법인 춘강(이사장 이동한)과 한림읍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함동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회장 김홍철)는 직원, 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26일 한림읍 한수리 일원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사진>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마을·해안 정화 활동, 무료 진료, 김장김치 나눔(100

가정), 침구류 전달(7가정), 된장·간장 전달(6가정), 참치·식용유 나눔(94가정), 주거환경개선(7가정) 등으로 진행됐다.

사회복지법인 춘강은 나눔경영을 통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연 2회 제주도내 읍면 지역을 방문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 치매안심센터 신규 종사자 교육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내 6개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으로 채용된 신규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직무기초공통교육 및 직무심화담당자 교육을 운영한다.<사진>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은 의사(축탁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작업치료사 등이며, 각 센터 치매상

담 및 등록관리팀, 조기검진팀, 쉼터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홍보팀으로 나뉘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규종사자 교육은 치매안심센터 직무기초 공통교육, 각 업무별 직무심화담당자 교육 순서로 이뤄지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와 중앙치매센터의 주관으로 이뤄진다.

교육 내용으로는 안심센터

종사자 윤리를 비롯한 각 직무별 기초교육, 직무심화 담당자 교육으로 조기검진, 치매환자 쉼터운영, 헤아림 치매가족교실, 지역특화사업, 치매인식개선 및 파트너,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안심 통합관리시스템 교육 등 실제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직무수행 내용으로 이뤄진다.

강사진으로는 조기검진사업의 박준혁 광역치매센터장(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을 비롯해 이정석(제주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쉼터운영사업의 신종일(호남대 작업치료학과장) 교수, 가족교실사업은 중앙치매센터 헤아림 개발 및 운영지원팀에서 참여한다.

## 여성장애인 산전검진비 지원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오는 8월까지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산전검진비 지원사업 '행복든든 고운맘(MOM)'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임신 20주 이상의 여성장애인이다.

대상자 선정은 장애등급에 차등을 두지 않지만 뇌병변 장애 및 저소득 여성장애인일 경우 우선 지원한다.

지원액은 여성장애인 산

전검진비용 총액 중 본인부담금 70%(최대 250,000원)이다.

신청은 오는 8월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본인통장사본, 진료비 납부영수증, 의사처방에 따른 진단서 또는 확인서, 저소득층 확인 가능한 증명서(해당자)) 원본을 갖춘 후 등기 접수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2-747-3675)로 문의하면 된다.

## 전국 건물위생관리 기능경진대회서 고민범 씨 대상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원장 한봉금) 소속 고민범 씨가 전국 건물위생관리 기능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

다고 밝혔다.<사진>

고 씨는 지난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주관 '2018 전국 건물위생관리 기능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등이 수여된다.

올해 다섯 번째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건물위생관리업 종사자들이 출전해 회사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엘린은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수상, 전국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한봉금 원장은 "기술기능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 직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평소 품질혁신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한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일하는 근로장애인들에게도 품질 높은 건물관리시스템을 교육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금연의 날 행사 참여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윤인노)는 지난달 2일 쉼터 청소년들과 제주금연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금연의 날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청소년들과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은 폐 나이 및 기능 측정과 인바디 검사를

통한 생활습관 교정, 알레르기 검사 등이다.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관계자는 "폐 나이 측정, 인바디 등 행사장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체험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 내 몸 상태를 체크 하고 건강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달 22일까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소/식/마/당

(무순)

EM비누가루 제공



서홍동EM비누센터(EM환경동아리)는 지난달 14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을 방문해 EM비누가루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홍동EM비누센터는 직접 폐식용류를 수거하고 천연비누와 세탁비누 등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정혜재활원을 비롯한 지역내 복지시설에 후원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센터 장애인 전문의 진료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문정신)는 12월까지 매월 첫째 수요일마다 춘강의원 재활의학과 이현정 부원장이 센터 장애인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전문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는 이용자들이 투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행동유형에 따른 대처 등을 문의하고 가정과 연계해 체계적인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 대처방법 홍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지난달 8일 서귀포시 신서귀포 일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아동학대 발견시 대처방법과 신고전화번호(112)를 홍보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희망을 전하다' 공연 개최



제주시희망원(원장 김숙희)과 아리쓰리소리왓(회장 김동철)은 지난달 6일 문화소외지역 공연활동의 일환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제광원을 방문해 '희망을 전하다' 공연을 개최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열린 이날 공연은 난타, 색소폰, 민요, 중창 등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시설 어르신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등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시각장애인 오름 산행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예홍)은 지난달 1일 제주삼다수 생산2팀(팀장 고병수)과 죽은노꼬메오름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재활을 돕기 위한 오름산행을 진행했다.

이날 제주삼다수 생산2팀은 자원봉사자로 나서 산행에 따른 안내보행과 삼다수 등을 지원했으며 오름산행에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은 생활에 커다란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인권 교육 실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11~12일 거주 장애인들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대 및 인권침해의 사전 예방과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상용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 강사가 맡았으며 종사자들은 사랑의 집 시설과 연합해 교육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발달장애인 일본문화체험



서부장애인복지센터(센터장 안원식)는 제스코마트 강동대 대표의 후원으로 지난 5월 28~31일(3박4일) 발달장애인의 일본문화체험 여행 '가즈아 오사카~!'를 실시했다.

이번 여행은 오사카, 고베, 교토 지역을 관광하며 일본의 문화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일본여행을 통해 발달장애인에게 해외여행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희망드림 프로젝트 선정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버프'는 지난 5월 25일 제주농협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2018년 제주농협과 함께하는 꿈·희망 프로젝트, 희망 Dream'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경제적·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 중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해 제주농협 임직원들이 행복기금을 조성·지원하는 운동이다.

장애 인식개선 행사 봉사



대한민국 해병대 ROTC 동우회는 지난 5월 26일 서귀포장애인부모회에서 주관한 2018년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행사에서 지적장애인시설 성자현과 연합으로 참가해 기념식과 서귀포 시내 거리행진, 나눔, 체험행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철 상임부회장은 "이번 여름캠프에도 참여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봄 나들이 행사 진행



희망모아주간활동센터(센터장 강은정)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21일 가족과 함께하는 봄나들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봄 나들이는 센터 장애인과 가족 29명이 동행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봄 나들이에는 섭지코지와 한화아쿠아플라넷 등 도내 관광지를 다니며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업무협약 체결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향)는 지난 5월 28일 놀이마당 얼쑤 활동실에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놀이마당 얼쑤(이사장 김진우)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저변 확대 및 발달장애인 인재육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초청 플루트 공연 실시



제일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순희) 제일플루트앙상블팀은 지난 5월 25일 CJ도너스캠프에서 실시한 '대화가 있는 가족인성학교 in 제주'에서 오프닝 공연을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인성학교가 제주에서 열리는 것을 기념해 CJ도너스캠프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제일플루트팀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 사업으로 이뤄졌다.

시론

### 6·13 지방선거 단상

이번 6·13 지방선거에 유독 도의원 당선자 중 사회복지종사자가 많다. 필자를 포함하여 현장종사자 6명이 당선되었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이 등을 포함하면 8명이다. 교육의원을 제외한 36명 중 8명이 범복지계로 지난 2대에 걸쳐 한 두명 정도였음을 볼 때 가히 기록적이다. 8명의 소속된 정당

#### 보편적, 포용복지 이뤄야

을 보면 민주당이 7명이고 1명이 정의당이다. 당선자간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보편적, 포용복지로의 예산투자 등 정책적 환경 전환도 가능할 듯하다. 지난 10년 이상 대규모 개발 결과 도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졌다는 증거가 없다. 10조 이상의 외자유치와 경제성장 전국최고의 역동적 제주가 되었다고 하지만 비정규직이 전국상위인 40%대로 일자리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인구압에 의한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오수문제, 치안과 안전문제도 당면 문제이다. 개발과 투기자본에 의한 부동산 폭등은 제주 경제

에 부메랑이 되어 소상공인과 청년, 장애인의 거주와 삶을 위협하고 있다. 각종 개발로 지방세수 1조 5천억 시대를 열었으나 그 이익을 도민의 삶 증진에 환류했거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실증적 증거도 미약하다. 우발이익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도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현도정이 그간 제대로 대처했는지도 의문스럽다. 지금까지 도민 최저의 삶에 맞춘 잔여적 복지였다면 최적의 삶을 보장하는 건강, 주거, 고용, 보육을 포함한 5대 돌봄과 안전영역까지 과감한 보편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패자부활이 가능하고 공동체의 삶도 유지된다. 전국최하위 복지재정, 정부합동평가 복지분야 최하위인 '다급' 평가를 받으면서 복지재정 1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도정의 자화자찬은 듣기 불편하고 어색하다. 차제에 정치적 줄에 의해 시설기관간 예산 격차가 발생하는 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간 무늬만 소통인 관치행정도 실제 협치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야 창의적 복지계획이

가능해지고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다.

6·13지방선거에서 복지계 종사자의 다수 도의원으로 당선 가능했던 이유가 복지계의 집단적 추동한 결과는 아니다. 면면

#### 창의적 복지계획 등 필요

을 보면 각자 정당 내 정치적 숙성과 내공이 쌓인 분들인데 사회복지인들이 복지현장출신 후보에 대해 관심과 지지가 남달랐던 것은 사실이다. 하여튼 도민복지를 위한 생활정치 의장을 열게 해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편적 복지 제주로 전환하는데 저의 소임을 다 할 테니 깊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 현 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기고

### 저출산에 관한 제언



**김 미 숙**  
건업동행정책복지센터 동장

나는 세 자녀의 엄마이다. 어 느덧 세 아이가 스물이 넘어 같이 살던 집을 떠나 기숙사로 원룸으로 각자 살터를 찾아 떠났다. 필자가 결혼한 90년대 초에도 자녀를 낳고 돌봄에 어려움이 많은 시절이었다. 그래도 아들 둘을 내리 낳고 딸도 한명은 있어야지 하는 맘으로 셋째를 가졌을 땐 약간 따가운 주변시선도 있었다.

그야말로 7~80년대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이상 낳지 말자”는 캠페인을 보고 자란 내

가 “셋을 낳아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으나 열달을 보내고 딸을 낳았다.

직장생활에서 밀려드는 일, 항상 모자란 잠과 시간에 쫓겨 개인적인 문화생활 등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생활, 양가 부모님이 농사일을 하셔서 전적으로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요즘은 하도 세상이 각박하다보니 이런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사회적 큰 숙제다. 점점 나라 전체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벌써 육지부 몇 읍면지역에선 지역인구가 점점 줄고 그에 따라 슈퍼 등 생활시설이 없어지고 자생력이 떨어져 고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소도읍면지역이 인구가 줄어 통폐합위기로 다가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기를 낳는 건 엄마만이 할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함께 나서야 한다. 부모의 경제력 여부와 관계 없이, 지역 어르신과 함께 공동양육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설을 준비하고, 늦게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이웃 간 서로 함께하는 돌봄이 필요하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아이로 키워야 한다. 우리가족, 우리나라, 우리엄마, 우리아빠, 원래 우리민족은 내가 아닌 우리를 앞에 두고 살던 민족이 아니던가? 이제 그런 “우리 공동체”를 살려 우리 동네 아이들이 모두 밝고 건강하게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에서 우리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돌봄사각지대가 없는 새로운 사회돌봄공동체 패러다임이 정말 필요하다.

칼럼

### 돈의 명암

인간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여겨지는 돈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대는 동전과 지폐, 유가증권이 재화의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이제 가상화폐까지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다. 앞으로 지폐와 동전이 사라지고 돈이 어떤 형태로 변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화폐인 돈은 상품교환의 매개물로 가치의 척도, 지급의 방편,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유통되는 재화이다. 돈이란 일상생활의 수단으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경제활동을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간다.

돈은 시대에 따라 효용가치는 다르지만 돈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매체로 작용한다. 빈부에 따라 삶이 윤택해지고 피폐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빈부에 따라 행복과 불행, 삶의 질이 정비례하는 건 아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듯이 행복의 척도는 돈이 아니라 내면의 사유에 있다.

#### 부동산투기·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횡행

그럼에도 우리사회에는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탐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부동산투기·뇌물수수·부정축재 등 부정부패가 횡행하고 있다.

일제강점기후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로 천민자본주의 부유한 상층집단이 형성되었다. 소수에 집중된 부와 황금만능주의 풍조는 선량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 권력형 부정축재와 부자들의 갑질 횡포는 서민들의 공분을 사고 빈부의 양극화갈등으로 점철되었다.

더욱이 역대 대통령들이 돈에 얽힌 부정부패로 줄줄이 단죄되는 현실에 가슴이 시리다. 최고 권력에 재물도 충분할 터인데 뭐가 부족해서 부정한 돈을 탐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인간의 탐욕의 끝은 어디인가.

권력자와 부유층은 고귀한 신분에 따른 윤리적 의무가 있다. 이를 저버린 자들의 권력과 부는 부러움과 존경대상이 아닌 질시의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가와 부자들이 기부활동과 부의 사회적 환원이 점차 확대되는 것은 다행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신분에 맞는 윤리와 직분을 다할 때, 그의 지위는 격상되고 존경받게 된다.

세상에는 근검절약과 피땀 어린 노력으로 모은 재화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원하는 사람도 많다. 이런 인정과 미덕이 있기에 우리 공동체사회가 건재한 게 아닐까.

돈을 버는 것은 인간의 완성에 근접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일 수 없다. 돈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며 분수에 맞는 삶 속에서 보람과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문 익 순**  
전 제주4·3사업소장

사회복지 서비스업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안내

# 노동시간 주당 68시간서 52시간으로 단축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한주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현장이 큰 변화에 직면한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업 역시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었던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여러 과제를 떠안게 됐다. 특례 업종 제외의 의의와 과제를 들여다본다.<편집자주>

### 근로시간 단축 제도(주 52시간) 적용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7월 1일부터 (특례 업종서 제외된 경우는 2019년 7월 1일)
- 50~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 5~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부터



### 연장근로 한도 없는 특례 업종에서 사회복지 제외 인력·예산부족, 교대 근무 미배치 우려 목소리도

#### ▲노동시간 주 16시간 감소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한 한주 최대 노동시간은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된다.

연장근로에 한도가 없어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던 특례 업종도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1종 사업장은 2019년 7월 1부

터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돌봄 공백 등 우려

정부는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인력·예산 부족, 적정 교대 근무 미배치에 따른 돌봄 공백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 및 인재근·권미혁 국회의원이 국

회도서관에서 주관한 '문제인 정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연명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추진지원단장은 "1일 8시간 근무를 위한 적정 교대근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정 인력배치기준 대비 3배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예산지원은 2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적정 근무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면 돌봄 공백, 높

은 노동강도가 문제 된다. 특히 야간근무 인력 과소로 화재나 응급환자 등 위급상황에 매우 취약하다"라고 지적했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 열악한 근로 환경을 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논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사회복지서비스업종의 인력·예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표준 근로 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대 근무를 위한 필요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는 한편 교대근무 조별 표준근무표, 시간대별 근무인력 기준을 설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고위험 최종증 장애인 돌봄 인력의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보육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평가인증 부담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특히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등을 통해 특례 제외 업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가 대거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

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

사 6000명에 대한 예산(10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 이에 따라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에 3만 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근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전국 83개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 시범 적용을 했다. 그 결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

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대체 인력 확보가 꼽혔고, 보조교사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한 사항이 지적됐다.

휴게시간 의무화에 대비해 복지부는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고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한다.

또, 특별활동·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65세로 상향해 퇴직한 전직 보육교사 등의 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체 근무 가능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근로자에게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 서비스로 제공된다.

복지부는 다른 사람이 돌봄이 없을 경우 사망 사고의 위험이 큰 고위험 장애인 800여명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에 쉬는 동안 가족이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대체근무를 할 수 있

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가족이 아닌 다른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에 대체근무를 할 경우 서비스 비용과는 별도의 지원금을 대체근무 30분당 5000원, 활동지원사 1인당 월 50만원 내에서 지급키로 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업지침을 개

정하고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교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 제도에 대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단속, 처벌하기보다는 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는 데 힘쓰는 방침이다.

시설탐방

(98)제주몽생이그룹홈

# 편안하고 즐거운 안식처로 자리매김

## 2011년 문 열어...가정 복귀 프로그램 중점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가정입니다”

7명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제주몽생이그룹홈(원장 김완숙)을 찾았다.

그룹홈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아이들을 위해 2011년도에 문을 열었다.

김 원장은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 시작했지만 2년간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하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그룹홈을 운영해야겠다고 거듭 결심해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룹홈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가정 복귀’다.

가정 복귀를 위해 부모와의 소통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

소통을 위해 하루 전에만 연락을 주면 부모가 언제든지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을 보고 싶은 부모나 부모가 보고 싶은 아이들이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원가족과의 나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나들이 프로그램에 부모의 참여를 독려해 아이들과 부모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 원장은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수한 성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습·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은 학원에

도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예체능에 재능이 많은 아이는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룹홈은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가정인 만큼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룹홈 규칙을 정할 때는 가족회의를 거치고,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며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

그 결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선생님에서 ‘엄마’, ‘이모’로 부르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아이들이 고민이 있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생일이면 선물과 함께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그룹홈에서는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한 직원 교육과 더불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상담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김 원장은 “아이들이 원가족이랑 지내는 것처럼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특히 노력하고 있다”며 “그룹홈 아이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김승지 기자>



▲ 제주몽생이그룹홈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를 하거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 법률홍닥터·54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례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A 씨(여, 60대)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근로능력이 없어 다른 수입 없이 국민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다. A 씨는 얼마전 서울의 한 지방 법원으로부터 소송관련 서류를 받았으나 그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건강과 비용상의 문제로 육지로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

다.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이 아주 오래전 부인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이런 저런 빚 독촉을 수 없이 받아왔기에 서류나 소송이 처음은 아니었다.

또한 본인이 사망하면 빚이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파산을 알아보며 소송서류를 방치해 두고 시간만 흐르고 있었다.

####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과 소송구조

A 씨가 받은 소송서류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었고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A 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내용이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돈을 빌려준 신용카드 발급회사가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회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A 씨는 그동안 많은 빚 독촉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번 건이 어떤 채권에 대한 것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전 남편이 언제 어떻게 쓰고 갚지 않은 것인지 추적조차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맞설 엄두가 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신속한 절차를 개시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였지만 A 씨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법원 출석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이의신청서 및 소송구조신청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법률홍닥터의 도움으로 의뢰인이 기초수급자인 점과 출석이 불가능함을 밝혀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는 서울 지역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 것이다. 그렇지만 A 씨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홍닥터는 소송구조를 지원할 변호사를 찾도록 수소문 하여 무료로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었다.

#### ◆ 소송에서 이기고 채무에서 벗어나

A 씨가 적극적으로 나오

자 채권자인 원고가 소취하신청을 하였다. 이대로 소송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 취하의 경우 언제든지 다시 소송 제기가 가능한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었기에 채무 독촉에 더 이상 시달리기 원치 아니하는 A 씨의 의사에 따라 소송은 계속 진행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채무 독촉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A 씨는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혼자 힘이었다면 소송구조신청이나 변호사 선임 등을 엄두도 못 내었을텐데 법률홍닥터가 있었기에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기사는 법무부 발간 '2017 법률홍닥터 우수사례집'에 실린 실제 사례입니다.